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 — 그 연원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코퍼스 언어학은 말뭉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코퍼스 언어학의 최대 장점은 연구 대상이 되는 코퍼스 자체가 실제로 사용되어 그 존재가 입증된 자료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코퍼스 언어학의 대두는 이상적인 화자(ideal speaker)¹⁾가 산출한 가공의 발화보다, 자연 상태의 화자(natural speaker)가 산출한 실제의 발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언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582). 과제 제목은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과 그 극복 -정량적 코퍼스 분석에 기초한 연구 성과의 실용성 극대화를 위한 정성적 연구-’인데, 본고는 1차 연도 연구의 결과물이다.

1) 생성문법론자들이 상정하는 화자로서 주로 이들의 연구방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어의 본질 규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언어 연구 철학의 근본적 변화를 뜻한다. 결국 언어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곧 언어학자의 선험적 ‘직관’과, 언어학자의 개입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언어 자료에 대한 경험적 ‘관찰’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 점이야말로, 언어 연구에 코퍼스가 도입된 주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언어 자료’와 언어학자의 내성적(內省的) 판단이 배제된 ‘객관적 관찰’을 핵심으로 하는 코퍼스 언어학은 번역학 자체의 내면적 성숙 과정과 맞물려 번역학에서 제기하는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 방법론을 내놓게 된다.

번역 작업과의 상호 피드백 속에서 그 효용성을 검증받는 실천적 성격을 갖는 번역학 연구가 실제 번역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을 번역 현장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도출된 이론이 특정한 번역자 개인의 개별적 역량에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번역자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정제된 일반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번역학의 연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적절한 규모를 갖춘 양질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바로 여기서 기술번역학과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이 이상적인 접점을 찾게 되어, 코퍼스를 기반 번역학(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이라는 번역학 연구방법론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번역학 연구에서,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과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규범적 관점을 벗어나 기술적 관점에서 번역의 결과와 과정을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것은 모나 베이커(Mona Baker 1993)였다.²⁾ 이때부터 코퍼스를 기반으로 기술번역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번역문(번역 텍스트)의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이 거둔 최대의 학문적 수확도 번역문의 보편적 특성, 이른바 ‘번역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³⁾ 번역 보편소로 지금까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번역문의 특성은 크게 단순화(simplification)와 명시화

2) “Gideon Toury가 기술번역학의 아버지로 정당하게 여겨진다면, Mona Baker는 코퍼스기반 기술번역학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을 만하다.” 안동환 역(2008: 33) 참고.

3) 그 이전에도 번역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자료나 분석자 자신의 번역 경험 등에 근거한 영세적인 기술에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explicitation), 규범화(=표준화, normalization), 합치(convergence) 등이다.⁴⁾

코퍼스 번역학이 방대한 분량의 실제 번역 자료를 활용하여 그동안 가설로만 제기되었던 번역 보편소의 존재를 입증한 성과는 분명 기술번역학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어떤 이론도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듯이, 코퍼스 번역학도 이론의 발전과 방법론의 진보에 따라 차츰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이는 것은 번역학 자체의 태생적 실용성과 관련이 있다. 번역과 번역학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상호의존성이 높다. 이러한 명제가 타당하다면, 번역학의 일차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번역의 산출에 기여하는 이론의 정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학의 과제는 궁극적으로 유능한 번역자의 사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번역 중재과정의 해명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얻어진 통계 수치는 ST와 TT의 특징 혹은 번역 전환이 완료된 결과론적 사실일 뿐, ‘번역 중재과정’의 해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번역 결과를 가리키는 통계 수치에 담긴 ‘번역 중재과정’을 해명하려면, ‘객관적’ 통계 수치와 원문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자의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해석 작업’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코퍼스 분석의 결과가 원천적으로 코퍼스 설계자의 의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퍼스를 활용한 정량적 통계 분석의 결과를 수용할 때, 코퍼스 설계자가 애초에 가졌던 의도와 설계의 기본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코퍼스에 기반하여 영-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어 수효의 증감 현상을 논의한 연구(최정아 2003)를 보면, 문법 구조의 차이와 번역자의 태도에 따라 단어 수효의 증감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가 코퍼스에 꼬리표(tag)를 달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연구자는 한국어에서 곡용과 활용을 마친 단위(어절 표시 단위)를 단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

4) 김혜영(2009: 27)에서는 ‘합치’를 ‘수렴화’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앞의 세 가지 경향, 곧 단순화와 명시화, 규범화가 비번역문에 대응되는 번역문의 특징이라면, 이 ‘합치’는 번역문들 상호 간의 유사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개념상으로 본다면 ‘상호 합치’나 ‘수렴화’가 보다 명징한 술어라고 하겠다. 이들 이외에 수사법과 관련하여 ‘중립화’를 번역 보편소로 거론하기도 한다.

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절층적 견해와 사뭇 다른 이러한 종합적 견해 하에서는, (한국어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와 어미가 애초부터 단어의 범주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한 정량적 통계 처리의 결과를 실제 번역 작업과 번역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번역 이론으로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통계 처리 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번역과 원전 자료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한 정성적 분석에 의지해서, 통계 수치의 이면에 도사린 의미를 읽어낼 수 있도록 연구자의 능동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영-한 번역 과정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우리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최선의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다룬 연구 업적을 비판적으로 개관하면서 한국어 번역문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추출하고(제2장), 이들 특징을 각기 어휘와 형태, 구문, 담화(화용) 등의 영역으로 분류한다(제3장). 이어서 한국어 번역문과 이들 번역문의 원전으로 구축된 영-한 비교코퍼스의 분석에 의지하여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난 이들 특징의 연원을 탐색한 다음(제4장),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중간언어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번역 중재과정에 반영하여 번역언어를 일상언어로 다듬는 데 필요한 일련의 수정변환규칙을 제안한다(제5장). 끝으로 본고에서 다룬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게 된다(제6장).

2. 코퍼스기반 번역학 연구사 개관

여기서는 비교적 대규모의 코퍼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다룬 연구 업적을 시기별로 조망해 보기로 한다.

국내에서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학 연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초기에는 주로 텍스트 언어학 연구자들이 번역 자료를 이용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다가, 최근 들어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코퍼스기반 번역학 연구에서 거둔 주요한 성과

를 주제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코퍼스를 활용한 본격적인 번역학 연구의 선편을 잡은 공로는 이영옥(2000, 2001, 2002, 2003, 2004)과 광성희(2000, 2001, 2002a, 2002b, 2004)에게 돌아 가야 할 것이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실제 언어 자료에서 수집한 예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자료 중심의 연구방법론’을 표방하고 있다.⁵⁾ 여기서 언급된 일련의 연구는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에 의지하여, 기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를 넘어서 번역학의 변경을 개척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지만, 코퍼스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수행된 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어 번역문의 특성을 탐색하는 우리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험적 사용에 근거하여 대체로 막연하게 제시되었던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를 상당한 분량의 실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⁶⁾ 한편, 후자는 코퍼스기반 언어학에 대해 어느 정도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한국어와 영어 간의 번역 전환에서 발생하는 결속구조나 정보성 등 텍스트성의 변화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일련의 연구이다. 특히 “원문에 비교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또는 원문에는 있으나 번역문에는 없는 모든 것”(광성희 2000: 92)을 ‘전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탐색하고자 하는 분명한 연구 의도와 방향에 입각하여 설계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병렬코퍼스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코퍼스기반 언어학과 연계된 본격적인 기술번역학의 성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⁷⁾

5) “수년간에 걸쳐 많은 실제 자료에서 수집한 예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자료 중심 연구방법론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텍스트별 빈도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였다”(이영옥 2000: 50)라는 필자 자신의 언급에서 보듯이, 코퍼스의 구축과 규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논문의 주안점은 코퍼스가 아니라, 대조문법에 놓인다고 하겠다. 물론 이들 논문에서 말하는 ‘자료 중심 연구방법론’이나 ‘실례 중심 언어학’은 모두 ‘코퍼스 언어학’을 가리키는 술어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6) 이들 일련의 연구가 대규모 코퍼스에 기반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찾는 우리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영한 번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 원리의 발견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예컨대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의 영한 번역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첨가하게 된다는 언급(이영옥 2003) 등은 주목할 만하다.

7) 다만, 문학 텍스트 8권과 비문학 텍스트 11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 중에서 60~90 쪽만을 병렬코퍼스로 구축했다는 언급(광성희 2000: 96)에서 보듯이 병렬코퍼스의 규

이들 연구의 뒤를 이어 코퍼스 언어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이를 번역학 연구와 번역 교육에 응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거나, 번역문 텍스트의 증감 현상 혹은 언어 사용역, 번역투 등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가 나타났는데, 정호정(2003a, 2003b, 2004)과 최정아(2003), 황세정(2004), 이근희(2005), 조재범(2008)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퍼스 언어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가 심화되면서, 보다 거시적인 주제인 번역 보편소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김순영(2005)과 원영희(2004)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시기까지의 연구는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수용하여 번역문 텍스트의 제반 현상을 분석했지만, 특히 그 규모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관계로, 코퍼스 언어학이 지향하는바 계량적 일반화에 의한 언어학적 의미의 발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외국의 대규모 코퍼스기반 연구와 비견되는 연구 성과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김혜영(2009a)이다. 김혜영(2009a)에서는 100만 어절의 번역 텍스트 형태분석 균형 코퍼스와 역시 100만 어절의 비번역 텍스트 형태분석 균형 코퍼스를 비교하여, 형태별 빈도에서 나타나는 영-한 번역문의 특징을 어휘, 구문, 담화화용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번역 보편소와 한국어 번역문의 개별 특징을 추출해냈다. 필자 자신의 지적처럼(*ibid.* 263), 이 연구는 일부 텍스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코퍼스를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높임 표현의 특성을 밝힌 김혜영(2008)이나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 보편소의 실현 양상을 논의한 김혜영(2009b, 2010b)은 김혜영(2009a)에서 추출한 한국어 번역문의 개별 특징과 관련된 주제를 심화한 연구이다. 한편 불-한 번역문학 텍스트의 어휘 특성을 탐색하거나 격식성을 분석한 이영훈 외(2010)와 김혜영 외(2010a)도 ST만 상이할 뿐 위와 동일한 연구 범주에 넣을 수 있다.⁸⁾

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과, 연구의 지향점이 한국어 번역문 텍스트의 특징을 추출하려는 데 있지 않고, 영어와 한국어 텍스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환 양상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은, 본고의 연구 방향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8) 최승권·김영길(2010)의 연구도 번역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로서, 여기에 나오는 ‘통

이들 일련의 연구는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밝히는 보다 광범위한 작업의 토대를 놓은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이영훈 외(2010: 183)에서 지적했듯이, 비교 코퍼스를 활용한 통계 중심의 연구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결과론적 기술에 그친다는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실제 번역 작업이나 번역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3. 코퍼스에 근거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

3.1. 층위별 분류

우리는 앞선 2장에서 대규모 병렬코퍼스(번역문과 비번역문)를 활용하여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탐색한 연구로 김혜영(2009a: 27-135)에 담긴 연구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서 논의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 가운데 언어학적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항목을 언어 단위의 층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3.1.1. 어휘와 형태 층위

체언에서는 1인칭 대명사의 빈도가 낮고 2인칭과 3인칭 대명사의 빈도가 높다. 3인칭 대명사로는 ‘그, 이것/이거, 그것/그거’ 등이 많이 쓰이며, 2인칭 대명사로는 ‘당신, 그대, 여러분’ 등이 많이 쓰인다. 의존명사로는 ‘것/거’와 ‘때문’

사 구조와 중간언어 표현 간의 매핑 규칙’(*ibid.*, 279)이나 ‘스타일 변환규칙’(*ibid.*, 280) 및 ‘어휘 번역 패턴’ 등은 본고에서 언급되는 ‘수정변환규칙’과 개념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1차 자료가 된 말뭉치는 전문번역자의 수작업에 의해서 생성된 반면, 최승권·김영길(2010)에서 1차 자료가 된 말뭉치는 기계번역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

9) 연구사에 언급된 다른 업적에서도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일부 발견할 수 있지만, 코퍼스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번역문의 전형성을 담보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했다.

이 많이 쓰인다.

용언에서는 ‘만들다, 가지다, 의하다, 대하다’ 등의 동사가 많이 나타나고, 동사적 피동에 사용되는 ‘-아/어 지다’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수식언에서는 단형 부정문에 사용되는 부사 ‘안, 못’이 적게 나타나고, 정도 부사 ‘가장, 매우, 아주, 너무’가 많이 나타난다. 접속 부사 ‘및, 혹은, 그런데, 한편’이 적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왜냐하면’이 많이 나타난다.

관계언(조사)에서는 주격조사 ‘-이/가’의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관형격조사 ‘-의’와 부사격조사 ‘-에게서, -으로부터, -으로’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서술어 ‘되다’의 보(충)어 자리에 보격조사 ‘-이/가’ 대신 부사격조사 ‘-(으)로’가 많이 쓰인다. 보조사 중에서는 ‘-은/는’이 많이 쓰인다. 주격조사 ‘-이/가’에 비해 주제 표시 보조사 ‘-은/는’이 많이 나타난다.¹⁰⁾ 접속조사는 번역문과 비번역문의 상대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3.1.2. 구문 층위

중속접속에서는 상투적 번역어¹¹⁾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만약, 만일’,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불구하고’가 많이 쓰인다. 내포문에서는 명사형어미 ‘-음’과 ‘-기’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 보조용언이 결합한 시간 표현(‘-고 있다’, ‘-아/어 왔다’, ‘-을 것이다’ 등)이 선어말어미에 의한 시간 표현보다 우세하다. 또 피동 표현 자체가 (비번역문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에 의하여’를 행위자로 하는 피동 표현이 두드러진다. 사동 표현에서는 ‘-게 하다’ 혹은 ‘-게 만들다’ 구성에 의한 장형 사동문의 빈도가 높다. 단형부정이 적으며, ‘-수 없다’로 표현되는 어휘적 능력 부정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3.1.3. 담화 층위

대등접속에서는 병렬접속과 선택접속의 쓰임이 적고 대조접속(‘그러나, 하

10) 김혜영(2009a: 114-118)에는 이 항목이 주제 및 초점 표시와 관련하여 담화·화용 층위 문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핵심이 조사의 용법이므로 여기서는 어휘와 형태 문제로 보았다.

11) 원문 언어의 흔적이 담긴 일종의 전이어(transitional word)라고 할 수 있다.

지만)의 쓰임이 많으며, 그 결과로 전환접속(‘그런데’)의 쓰임이 현저히 낮다.¹²⁾ 그리고 지시 표현에서 3인칭 대명사가 많이 쓰이고 2인칭과 3인칭 대명사는 평칭이 적게 쓰이고 존칭이 많이 쓰인다. 높임 표현에서는 선어말어미 ‘-(으)시.’에 의한 주체존대 형식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 번역문의 층위별 특징 중에서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항목은 어휘와 형태 층위에서 의존명사 ‘때문’, 구문 층위에서 ‘-게 하다’와 ‘-게 만들다’에 의한 장형 사동문, 담화 층위에서 문장 접속부사 ‘그러나’와 ‘그런데’ 등 세 가지이다.¹³⁾ 우리는 이들 세 가지 특징과 함께 문장부호 줄표(dash)의 번역 양상을 포함한 네 가지 특징을 대상으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짝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에 의지해서 이들 특징의 연원과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3.2. 정성적 분석 방법론 개요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한국어 번역문의 대표적인 특징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분석에 적용하게 될 조사 방법론을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3.2.1. 어휘와 형태 층위 - 의존명사 ‘때문’

김혜영(2009a: 42-5)에서는 번역문에서 의존명사 ‘때문’의 빈도가 높은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를 번역자가 ‘탓’ 대신 의미중립적이고 더 쉽고 단순한 어휘인 ‘때문’을 선택한 단순화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논의의 핵심은 한국어 번역문에 ‘탓’의 빈도가 낮은 것이 ‘때문’의 빈도가 높은 것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가 참으로 성립하려면 상응하는 원문 어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탓’과 ‘때문’으로 번역될 원문 어구의 총합이 일정하다면,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빈도에 상대적으로 영

12) 이 항목도 김혜영(2009a: 114-8)에서는 구문 층위의 문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등의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문장을 넘는 언어 층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13) 이들 세 가지 항목을 선정한 것은 이들이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이들 번역 어휘가 나타나는 TT 문맥과 함께 관련된 ST 문맥을 연구자가 일일이 대조해서 분석해야 제대로 된 기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의존명사 ‘때문’과 의미 영역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어휘에는 ‘탓’ 이외에 ‘덕분’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 세 어휘가 참여한 병렬코퍼스를 확보하여 각각의 분포를 조사해야 비로소 ‘때문’의 고빈도 출현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국어 번역문에 의존명사 ‘때문’이 고빈도로 출현하는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문과 번역문의 짝으로 이루어진 병렬코퍼스의 실증적 분석에 의지해서 그 실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3.2.2. 구문 층위 - 장형 사동

한국어 번역문에는 ‘-게 하다’, ‘-게 만들다’ 등의 통사적 사동이 비번역문보다 많이 나타난다(김혜영 2009a: 108-110).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의 사동 구문에는 접사 첨가에 의한 어휘적 사동, 곧 단형사동과 통사 구성에 의한 통사적 사동, 곧 장형사동이 존재한다. 통사적 사동이 번역문에 더 많이 출현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번역문에서 어휘적 단형 사동의 분포가 위축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원래 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은 통사와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므로, 상대적 분포에 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일상언어라면 당연히 어휘적 단형사동이 출현할 자리에 통사적 장형사동이 출현하는 경우에 한한다. 우리는 이 경우에 원문과 번역문이 확보된 병렬코퍼스의 분석을 통해, 번역문의 통사적 장형사동 구문이 원문의 어떤 어구를 번역한 것인가를 밝히고, 아울러 어휘적 단형사동과 통사적 장형사동의 상대적 분포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3.2.3. 담화 층위 - 문장 접속부사

김혜영(2009a: 89-91)에서는 번역문에 강한 대조(=역접)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그러나/하지만’의 분포가 약한 대조(=전환)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그런데/근데’보다 우세한데, 그것은 ‘but’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접속사를 상투적으로 대조 접속부사 ‘그러나/하지만’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했다. 이는 대조 접속부사의 고빈도 출현이 ST의 간섭에 의한 결과라는 뜻인데, 우리는 전

문번역가에 의한 번역 텍스트에서도 과연 이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병렬코퍼스의 분석에 의지하여 두 가지 접속부사의 상대적 분포 상태와 그 연원을 조사하고자 한다.

3.2.4. 문장부호 - 줄표(dash)

이 문장부호의 번역 양상은 유일하게 김혜영(2009a)에 언급되지 않았던 항목인데, 영한 번역에서 중요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¹⁴⁾ 원래 이 줄표는 한국어 문장에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비교적 근래에 들어 특히 번역문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줄표의 번역 양상도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이 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하여 어휘와 형태, 구문, 담화 층위의 특징과 함께 형식적 특징의 하나로 다루어보려는 것이다. 병렬코퍼스를 활용하여 영어 원문의 문장부호 줄표(dash)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조사해보기로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절차와 방법론에 입각해서 우리는 다음 제4장에서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 그 출현 분포를 확인하고 각각의 연원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4.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번역문 특징의 정성적 조사 분석

4.1. 코퍼스 소개 - 자료의 유형과 규모

정량적 통계 처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의 병렬코퍼스는 각각 25만 어절 규모¹⁵⁾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짝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 텍스트

14) 이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는 Lee(2010) 및 김도훈(2010)이 거의 유일하다. 전자에서는 한-영, 영-한 번역 자료를 검토 대상으로 줄표의 번역 양상을 기술하고, 후자에서는 한국어 번역에서 줄표, 접속부사, 말줄임표, 의존명사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영한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5) 본 연구는 2년 과제로 계획되었는데, 우선 1차 연도에는 25만 어절(실제는 26만 4천 어절)의 번역문과 이에 대응하는 원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조사 분석하여 번역문의 특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밝히게 된다. 이어지는 2차 연도에는 코퍼

유형에 의한 분석 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문학(소설, 수필), 지리, 종교, 식물학 등 되도록 다양한 장르로 구성했다.¹⁶⁾

<코퍼스 목록>

1. 『양들의 침묵』, 579쪽, 69,000어절, *The Silence of the Lambs*
2. 『내 남편의 수상한 여자들』, 399쪽, 51,000어절, *My Husband's Sweethearts*
3. 『인도』, 194쪽, 48,000어절, *India*
4. 『샤먼』, 190쪽, 51,000어절, *The Shaman*
5. 『허브』, 189쪽, 45,000어절, *Herbalism*

4.2. 분석 결과

4.2.1. 의존명사 ‘때문’

원문과 번역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의존명사 ‘때문’의 용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존명사 ‘때문’의 출현 분포를 알아본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번역문에서 의존명사 ‘때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원인을 ‘-기 때문’ 구성의 빈출¹⁷⁾에서 찾고 이를 어휘적 단순화와 관련시킨 김혜영(2009a: 42-5)의 주장과 대조해본다. 둘째는 의존명사 ‘때문’이 원문의 무엇을 번역한 결과인지를 알아본다. 이는 번역문만으로 구성된 코퍼스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번역 중재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가 구축한 코퍼스에서 의존명사 ‘때문’이 포함된 문장 용례는 모두 559건이었다. 우선 ‘때문’의 분포부터 살펴보자. 의존명사 ‘때문’은 다음의 (1)에서 보듯이 ‘-기 때문’ 구성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417/559), 이는 김혜영(2009:

스의 규모를 50만 어절쌍, 100만 어절쌍, 200만 어절쌍으로 두 배씩 확대해가면서 정량적 변수가 정성적 분석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16) 자세한 서지 사항은 논문 말미의 <코퍼스 명세>에서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의의 진행에 필수적인 제목과 쪽수, 코퍼스의 크기만을 표시하도록 한다. 참고문헌의 말미에 제시된 코퍼스 명세에 드러나 있듯이, 이들 작품의 번역자는 시장의 검증을 거친 전문번역가라고 할 수 있다.

17) 이러한 진술은 현상에 대한 지적이지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

42-5)의 지적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음으로 예문 (2) ‘명사/대명사 + 때문’ 구성(총 131회), 예문 (3) ‘관형사 + 때문’ 구성(총 10회) 및 예문 (4) 단독형 ‘때문’(총 1회)의 순서로 나타났다.

- (1) 남성으로 추정되는 까닭은,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여성에 의한 연쇄 살인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30-1-131)¹⁸⁾
- (2) “취와 별레 때문예요.” (24-1-113)
- (3) 욕실까지 따라 들어가 결국은 권총으로 마무리지었는데, 결국 이 때문에 욕실을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청소해야 했다. (102-1-469)
- (4) 때문에 16세기의 유명한 전설 속의 인물인 ‘피리 부는 사나이’가 하멜 른에서 취를 제거할 때도 이 뿌리를 몸에 지니고 다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497-5-71)

위의 분포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기 때문’ 구성은 의존명사 다음에 계사 ‘-이다’가 결합한 ‘-기 때문이다’ 형식(194/417)과 의존명사 다음에 원인을 표시하는 조사 ‘-에’가 결합한 ‘-기 때문에’ 형식(223/417)이 엇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용례 (4)의 존재이다. 이것은 ‘때문’이 의존명사가 아니라 자립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3)의 용법에서 관형사의 생략형이 발달한 형식으로 추정된다.¹⁹⁾

한편 같은 코퍼스에서 의존명사 ‘때문’과 일정한 의미영역을 공유하는 ‘탓’과 ‘덕분/덕택’의 출현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각각 12회와 19회로 나타났다. 이는 ‘때문’의 출현 빈도 559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로 이는 ‘때문’이 잘못된 까닭이나 이유, 원인의 의미를 갖는 ‘탓’의 분포 환경에서 의미중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이를 어휘적 단순화와 관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김혜영(2009a: 45)의 언급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아가서 의존명사 ‘때문’이 나타난

18) 괄호 안의 표기 중에서 첫째 숫자는 용례의 일련번호이고, 둘째 숫자는 출전 분류기호(4.1.2. 코퍼스 명세에 사용된 숫자와 동일함), 셋째 숫자는 번역서의 쪽수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용례 (1)의 숫자 표기는 ‘때문’과 관련된 30번째 자료로 1번 책(‘양들의 침묵’)의 131쪽에서 뽑은 것이라는 뜻이다.
 19) 이는 의존형식인 조사 ‘-보다’가 자립형식인 부사 ‘보다’로 전성되어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559건의 용례를 두고 좀더 적극적으로 전후 문맥을 고려해보면, 이들 가운데는 다음 예문 (5)-(6)에서 보듯이 ‘탓’과 ‘덕분’으로 교체해야 문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용례도 일부 발견되었다.²⁰⁾

- (5.a) 양호한 까닭은 연습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15-1-72)
 (5.b) 양호한 까닭은 연습에 충실했던 덕분(덕택)이다.
 (6.a) 멤피스에서 5시간 동안이나 차를 몰고 왔기 때문에 적잖이 피곤했다.
 (95-1-431)
 (6.b) 멤피스에서 5시간 동안이나 차를 몰고 온 탓에 적잖이 피곤했다.

다음으로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 의존명사 ‘때문’의 연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체로 접속사를 번역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전후 문맥에서 유추해서 영형태(零形態, zero)를 ‘때문’으로 번역한 용례가 가장 많았다(총 249회). 즉, 다음 예문 (7)에서 보듯이 원문에는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아무런 언어 표지도 없는데, 번역자가 전후 문맥을 보고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어구를 넣어서 번역한 것이다. 심지어는 예문 (8)의 밑줄 친 곳에서 보듯이 원문에 없는 어구를 첨가하면서 번역에 들어간 경우도 눈에 띄었다.

- (7.T) 린지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언니에게 물려받은 옷이 아직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재킷 소매가 좀 길다. (120-2-12)
 (7.S) Lindsay is petite. Her jacket sleeves are always a bit too long for her, as if she ~
 (8.T) 라스페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진작 나를 죽여주지 못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그대로 둔 부모님들이 원망스러워요. 죽여버렸더라면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것을……” (57-1-288)
 (8.S) And then, the last words Raspail ever said: “I wonder why my parents didn’t kill me before I was old enough to fool them.”

다음으로 위와 엇비슷한 빈도로 나타난 유형은 (9)-(12)에서 보듯이 접속사를 번역한 것이다(총 223회)²¹⁾.

20) ‘탓’의 경우에 29건, ‘덕분/덕택’의 경우에 10건이 ‘때문’과 교체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9.T)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알기 때문이다. (121-2-16)
- (9.S) I can't because I know what's stuffed inside—.
- (10.T) 인간사에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위험할 뿐 아니라 때로 암울하기도 하다. (330-4-22)
- (10.S) Since human affairs include much suffering, disease and death this is a dangerous and often dark occupation.
- (11.T) 내가 무엇이든 반반씩 내자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 둘의 돈은 결코 섞이지 않았다. (143-2-121)
- (11.S) I insisted that we go halves on everything, and our money never mingled.
- (12.T) 그들의 전차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냥이나 농사에 종사하는 몇몇 집단을 만났을 뿐인데, 이미 인더스 강 유역의 문명이 파괴되어 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203-3-12)
- (12.S) As their chariots moved east, they encountered only scattered communities of hunters and farmers, for the once great cities of the Indus Valley civilization had fallen into ruin.

다음으로는 (13)-(14)에서 보듯이 전치사를 번역한 용례(40회)가 많았고²²⁾, (15)-(16)에서 보듯이 특정 구문을 번역한 용례(19회)²³⁾와 (17)-(18)에서 보듯이 문장부호인 쌍반점(semicolon)과 줄표를 번역한 용례(17회)²⁴⁾가 엇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으며, (19)에서 보듯이 명사나 부사를 번역한 용례(11회)²⁵⁾가 가장 적었다.

- (13.T) 커피콩에 있는 카페인은 신장에 있는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에 이뇨제로 쓰인다. (449-5-15)
- (13.S) The caffeine in a coffee bean works as a diuretic by dilating the

21) 빈도수와 함께 나타난 접속사의 목록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cause(126회), since(41회), and(25회), for(15회), as(12회), so(4회).

22) 기타 전치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in, with, due to, from.

23) 기타 특정 구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that's why, to what purpose, the reason why, for this reason, it makes(물건주어 구문), so that, as a consequence of.

24) 이 밖에 쌍점(:)을 번역한 용례도 있었다.

25) 위에 나온 용례를 제외한 명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reason, consequence.

blood vessels in the kidneys.

- (14.T) 스타링은 그제야 크로포드가 통신 문제 때문에 그 수사전용 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48-1-229)
- (14.S) Starling could see that Crawford had chosen the van for its communications.
- (15.T) 스타링은 범죄수사 과정에서 지문채취법을 여러 시간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실습 대신 FBI 카지노실에 가 있었던 것이다. (26-1-119)
- (15.S) Starling had spent so many hours on searches and fingerprints as a Forensic Fellow that she was sent instead to this lecture, part of a series for visiting lawmen.
- (16.T) 아티와의 과거 때문에 이 질문으로 감정이 폭발치리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170-2-258)
- (16.S) I know this should all be very emotional for me in terms of Artie and our past.
- (17.T) 크로포드의 말에 스타링은 또 한 번 놀랐다. 스타링은 평소에 크로포드를 두 얼굴을 가진 모병관쯤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1-15)
- (17.S) That surprised Starling; she had written Crawford off as a two-faced recruiting sergeant son of a bitch.
- (18.T) “지미 프라이스 씨를 두고 연수생들은 연구실 귀신이라고 하죠. ‘이고르’라고 부르는 연수생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런 글씨가 찍힌 고무 앞치마를 주기 때문이죠.” (31-1-136)
- (18.S) The position is called ‘lab wretch’, or some people prefer ‘Igor’ – that’s what’s printed on the rubber apron they give you.
- (19.T) 아니면 내가 대낮에 취해 있기 때문인가? (129-2-39)
- (19.S) Or maybe it’s the fact that I’m drunk in the afternoon.

이상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전후 문맥에서 유추하여 번역한 유형(249건, 44.5%)과 접속사를 번역한 유형(223건, 39.8%)이 가장 많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²⁶⁾

4.2.2. 장형사동 구문

원문과 번역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장형사동 구문 ‘-게 만들다’/‘-게 하다’의 용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추출된 장형사동 구문의 용례 가운데서 접미사의 첨가에 의한 단형사동 구문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용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다. 이는 번역문에 통사적 사동, 즉 장형사동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기존 논의(김혜영 2009a: 108-110)의 검증 작업이다.²⁷⁾ 둘째는 장형사동 구문이 원문의 어떤 표현을 번역한 것인지를 알아본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번역 중재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조처이다.

우리가 구축한 코퍼스에서 장형사동 구문이 포함된 문장 용례는 모두 450건으로 ‘-게 만들다’²⁸⁾ 구문과 ‘-게 하다’ 구문이 각각 77건과 373건이었다. 다음의 예문 (20)과 (21)을 살펴보자.

- (20) 검브는 이번만은 죽이기 전에 꼭 머리를 감게 하고 싶었다.
(82-1-469)
- (21) 우리는 버팔로 빌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8-1-324)

예문 (20)과 (21)의 밑줄 그은 부분은 각각 전형적인 장형사동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의 동사 형태는 단형사동인 ‘감기다’로 교체할 수 없는 반면, (21)의 동사 형태는 단형사동인 ‘알리다’로 교체할 수 있다. 단형사동과 비교할 때 장형사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문장이 복문이라는 점이다. 위의 (20)을 예로 들면, 여기서 ‘머리를 감는’ 주체는 희생자이고, ‘머리를 감도록 지시하

26) 조사 결과에 담긴 번역학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음 5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7) 김혜영(2009a: 108-120)에서는 ‘-시키-’가 결합된 사동사를 접미사의 첨가에 의한 단형사동(어휘적 사동)으로 보고 이들 용례와 장형사동의 비율을 비교해서 장형사동 구문의 우세를 논증했다. 본고에서 ‘-시키-’가 결합된 사동사를 찾는 대신, 장형사동을 단형사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용례를 찾는 것은 장형사동 구문이 단형사동 구문의 영역을 얼마나 잠식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는 장형사동과 단형사동의 상대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8) 이것은 대표 형태로 실제 조사한 항목은 이형태인 ‘-게 해-’, ‘-게 했-’, ‘-게 한-’, ‘-게 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는' 주체는 문장의 주어이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감다'라는 문장이 '하다'를 서술어로 하는 상위문에 안겨 있는 복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동사 '감다'와 '하다'가 각각 별개의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므로 둘을 합쳐 하나의 동사 '감기다'로 교체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교체한다면 문장의 기본 구조가 '검브는 머리를 감기고 ~.'가 되어 단문이 되는 동시에, 문장의 의미도 문장의 주어가 직접적으로 사동 사건에 참여하는 직접사동이 되고 말아서 결과적으로 원문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21)에서는 '버팔로 빌에게'라는 여격 구성에서 보듯이 (20)에서와 같은 복문 구조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알게 하다'를 '알리다'로 교체해도 문장의 의미 해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체 장형사동 구문의 용례 453건 가운데 위의 예문 (21)과 같이 동사 형태를 단형사동 형태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27건으로 나타났다.²⁹⁾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장형사동 구문의 동사가 단형사동 구문 사동사의 사용 영역을 일정 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일반동사의 사용 영역까지 사용 범위를 확장했음을 알려준다. 이로써 한국어 번역문에 통사적 사동구문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김혜영(2009a: 108-110)의 주장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장형사동 구문의 연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예문 (22)-(25)에서 보듯이 원문의 사역동사 구문을 장형사동 구문으로 번역한 용례는 모두 6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have', 'make', 'let', 'get'을 번역한 용례가 각각 3건, 38건, 14건 및 10건으로 나타났다.

(22.T) 또 내 생일날 폴리처상을 수상한 시인에게 소네트를 쓰게 하기도

29) '-게 만들다' 용례에서 2건, '-게 하다' 용례에서 25건이 조사되었다. 주요 용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예) '놀라게 하다(41-1-229)' → '놀래다'('놀래키다'는 방언임), '드러나게 하다(43-1-258)' → '드러내다', '서게 하다(67-1-376)' → '세우다', '잡게 하다(72-1-392)' → '잡히다', '끓게 하다(84-1-469)' → '끓리다', '보게 하다(86-1-470)' → '보이다', '좁게 하다(91-1-491)' → '좁히다', '들어가게 하다(96-1-520)' → '들이다', '강하게 하다(337-5-104)' → '강화하다', '밝게 하다(293-5-43)' → '밝히다' 등. 이 밖에도 '-게 만들다'나 '-게 하다'의 동사 형태를 사동사가 아닌 일반동사로 바꿀 수 있는 용례도 각각 6건과 18건이 발견되었다. (예) '결리게 하다(21-1-107)' → '결다', '하게 하다(49-1-274)' → '시키다', '나가게 하다(70-1-382)' → '내보내다', '깨어나게 하다(208-3-94)' → '깨우다' 등.

했다. (110-2-44)

- (22.S) He once had a Pulitzer Prize-winner write a sonnet for my birthday.
- (23.T)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흡족한 시바는 바위를 아주 뜨겁게 해서 앞으로 이곳에 올 요기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186-3-75)
- (23.S) His time there passed well, and in gratitude he made the rocks hot so that future yogis who visited the site would be able to sit there in warmth and comfort.
- (24.T) 조용히 이 아가씨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29-1-149)
- (24.S) ~ and let me take care of her.
- (25.T)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생각해봤죠. (118-2-98)
- (25.S) So, I was thinking, how do we get the two to meet?

그 밖에 일반 동사를 장형사동 구문으로 번역한 용례가 222건이었다. 이 가운데는 다음 예문 (26)에서 보듯이 사역의 기능을 갖는 동사를 장형사동 구문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³⁰⁾, 예문 (27)에서 보듯이 한국어에 대응하는 단일 동사가 없는 관계로 장형사동 구문을 도입한 경우도 있었다.³¹⁾

- (26.T) 의례를 함께하던 샤먼들이 그녀의 집으로 가서 진수성찬을 먹고 돌아올 때까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녀를 내려오게 해서 샤먼으로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그녀가 체험한 환시에 대해 질문을 한다. (247-4-62)
- (26.S) The shamans who have accompanied her until now leave her alone, walking away to a large feast at the House of Initiates. If

30) cause, render, enable, allow, force, set, lend 등의 동사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31) 대표적인 동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worry(불안하게 하다), break(기슴 아프게 하다), surprise/startle/frighten(놀라게 하다), remind(떠올리게 하다), stop(멈칫하게 하다), upset(화나게 하다), soothe(차분하게 하다), scare(놀라게 하다), confuse(혼란스럽게 하다), cost(대가를 치르게 하다), please/appease(기쁘게 하다), wake/awaken(깨어나게 하다), loosen(헐겁게 하다), illuminate(빛나게 하다), unite(하나가 되게 하다), balance(균형을 이루게 하다), slow(늦추게 하다), bind(얽매이게 하다), fear(두렵게 하다), dissolve(사라지게 하다), strengthen(강하게 하다), cool(차갑게 하다), warm(따뜻하게 하다), animate(살아 움직이게 하다), vibrate(진동하게 하다), liberate(자유롭게 하다), stimulate(원활하게 하다), weaken(약하게 하다) 등.

she has not fallen by the time they return, they help her down and question her about her visions.

(27.T) 가네샤는 심오하고 명상적인 문구가 나올 때면 비아사의 구술 속도를 늦추게 했고,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비아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구술을 멈추게 했다. (176-3-56)

(27.S) The denser, more speculative passages were apparently attempts to slow the deity down, forcing him to stop and think whenever the meaning became unclear.

마지막으로 예문 (28)-(29)에서 보듯이 특정한 동사나 구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자가 의역의 수단으로 장형사동 구문을 사용한 용례가 163건으로 의외로 많이 나타났다. 즉, (28.T)의 밑줄 그은 어구는 원문 (28.S)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부정 부사 ‘not’을 번역자가 ‘not well hidden’으로 파악해서 장형사동 구문으로 옮긴 것이다. (29.T)의 밑줄 그은 어구도 (29.S)의 밑줄 그은 어구 ‘reveal to him’을 의역해서 장형사동 구문으로 옮긴 것이다.

(28.T) 첫번째 범행의 희생자는 꼭꼭 숨겨두고 두 번째 범행의 희생자는 쉽게 발견되게 했다. (76-1-458)

(28.S) The one he started with was well hidden, the second one, not.

(29.T) 왕은 그 브라만에게 브라만의 진면목을 깨닫게 해준다면 소 1,000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166-3-23)

(29.S) The king offered the brahmin 1,000 cows if the could reveal to him the nature of brahman (absolute spirit).

이상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원문의 사역동사 구문을 번역한 유형(65건, 14.4%)에 비해 사역과 무관한 구문을 번역한 유형(385건, 85.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4.2.3. 문장 접속부사

원문과 번역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접속부사 ‘그러나’(‘하지만’, ‘그렇지만’)와 ‘그런데’(‘근데’)의 용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강한 대조(=역접)를 나타내는 ‘그러나’ 계열의 접속

부사와 약한 대조(=전환)를 나타내는 ‘그런데’ 계열의 접속부사의 상대적 분포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다.³²⁾ 이는 번역문에서 ‘그런데’와 ‘그러나’의 상대 빈도 차이를 언급한 김혜영(2009a: 64)의 조사 결과(0.143=43/300)를 확인하는 성격을 갖는다. 둘째는 ‘그러나’(‘하지만’ 포함)가 원문의 무엇을 번역한 결과인가를 조사한다. 이는 우리의 일관된 관심사인 번역 중재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축한 코퍼스에서 문장 접속부사가 포함된 문장 용례는 모두 808건으로 ‘그러나’와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근데’가 나타난 용례는 각각 315건, 370건, 3건, 118건 및 2건이었다. 다음의 예문 (30)은 각각의 접속부사가 출현한 문장의 용례를 보여준다.

- (30.a) 그러나 시베리아에서처럼 사면의 행위는 중앙권력과의 관계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1-4-41)
- (30.b) 하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152-2-28)
- (30.c) 그렇지만 칼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숭배의 대상이 된다. (2-3-81)
- (30.d) 그런데 카메라가 나만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12-4-20)
- (30.e) 근데 뇌물을 안 받더군. (2-2-307)

우선 이들 다섯 가지 유형의 문장 접속부사 유형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그러나’와 ‘하지만’의 분포이다. 이 두 가지 접속부사는 일반적으로 전자가 문어체에 사용되고 후자가 구어체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양자 모두 동일한 대조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되, 텍스트의 어체(style)에 따라 출현이 결정되는, 이른바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두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실제 번역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양자는 동일한 번역자의 동일한 번역서에서도 나타나서 이른바 중복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양자가 수행하는 의미 기능에 모종의

32)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대등적 연결어미 가운데서 ‘-으나’, ‘-지만’, ‘-는데’, ‘-아/어도’는 모두 대조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분류된다. 문장 접속부사 ‘그러나’, ‘그렇지만/하지만’, ‘그런데’ 등 문장 접속부사의 의미기능도 기본적으로 이들 연결어미의 의미기능과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³³⁾ 인접한 문맥에서 ‘그러나’와 ‘하지만’이 차례로 사용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1) 스탈링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크로포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크로포드는 정부지출금 사정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예산을 따내러 법무부에 가고 자리에 없었다.

볼티모어 경찰서의 살인 사건 담당 부서에서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얻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은 연방수사국이 전담할 성질이 못 되었다. 자료를 요청해봐야 이쪽의 정보 누수만 생길 터였다. (1: 58-59)

위 (31)에서 첫 단락의 ‘그러나’는 바로 앞의 문장과 해당 문장 사이의 사태 관계(‘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건’ 사태와 ‘전화를 건 그 상대방이 없는’ 사태)를 볼 때 별 어려움이 없이 역접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둘째 단락의 ‘하지만’은 앞의 문장과 해당 문장의 사태 관계를 따져 볼 때 앞서 본 ‘그러나’의 경우만큼 대조의 의미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언뜻 보아 지역 경찰서(볼티모어)와 연방수사국의 대조가 눈에 띄이지만,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위 예문 (31)에 나온 인물은 지금 자신이 말을 사건에 관한 자료를 얻고 싶은데, 볼티모어 지역 경찰서에서 얻지 못하고 연방수사국에서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료를 얻고 싶다’는 생각과 ‘자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대조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 (31)에서 ‘그러나’가 문면에 드러난 비교적 뚜렷한 대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면, ‘하지만’은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적인 대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의 의미 기능 차이를 잠정적으로 표층적 대조

33) 후술하겠지만, 양자는 원문의 대응되는 어구에서도 중복 분포를 보인다. 예컨대 동일한 번역자가 원문의 동일한 접속사 ‘but’을 어떤 문맥에서는 ‘그러나’로, 또 다른 문맥에서는 ‘하지만’으로 옮기고 있었다.

34) 임홍빈(2004: 228-9)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 대조’라고 불렀다. 예컨대 ‘철수는 가난하지만 씩씩하다.’라는 예문에서 ‘가난하면 씩씩하기가 어렵다’는 예상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가난하지만 씩씩하다’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화자나 청자의 화용론적 인식이나 전제가 개입되어야만 대조 관계의 의미 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과 심층적 대조 기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에 전환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데’까지 포함해서 고려한다면, ‘그러나’는 직접적이고 표층적인 대조의 의미 기능, ‘하지만’은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대조의 의미 기능, ‘그런데’는 간접적인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³⁵⁾

한편 직접적인 대조 기능의 접속부사 유형과 간접적인 대조 기능의 접속부사 유형에 대해 그 상대 빈도를 비교해보면, 대략 0.174(120/688)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영(2009a: 64)에 제시된 조사 결과(0.143=43/300)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⁶⁾ 아울러 ‘그러나’와 ‘그런데’의 이와 같은 상대적 분포 차이에 대해 김혜영(2009a: 133)에서는 원문의 대조 접속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환 관계의 용법(‘그런데’)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역접 관계 용법(‘그러나’)으로 잘못 처리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했다. 아래 예문 (32)-(33)을 살펴보자.

- (32) 마라는 흥분·환희·중독·갈망·죽음의 공포 같은 유혹의 화살을 들고 다시 나타나 싯다르타에게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화살은 싯다르타를 해치지 못했다. 그는 세속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나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3: 32)
- (33) 렉터 박사는 손을 들어 스탈링의 말을 막았다. 스탈링은 그의 손이 참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운데손가락이 아주 똑같은 크기로 들어 있었다. (1: 49)

위 예문 (32)의 문장 접속부사 ‘그러나’는 앞서 말한 직접적이고 표층적인 대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전환 관계의 문장 접속부사 ‘그런데’로 교체할 수 없다. 반면에 (33)의 ‘그러나’는 오히려 ‘그런데’로 교체해야 자연스럽게 읽힌다. ‘손이 참한’ 사건과 ‘가운데손가락이 같은 크기로 들’인 사건은 정반대의 상황 전개라기보다는 다소 예사롭지 않은 의외의 상황 전개로 보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김혜영(2009a: 63-8)의 주장

35) 전후 문맥이 반대로 전개되는 사태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 ‘하지만’ > ‘그런데’ 정도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6) 양자의 차이는 조사한 코퍼스의 어절 수 차이(25만 : 100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그러나’(‘하지만’, ‘그렇지만’ 포함)가 사용된 용례 가운데서 ‘그런데’(‘근데’ 포함)로 교체되어야 전후 문장의 연결 관계가 보다 자연스러워지는 용례를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 대략 41건이 이러한 범주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용례 688건을 놓고 볼 때 그다지 의미 있는 크기로는 보이지 않는다.³⁷⁾

다음으로 이들 문장 접속부사는 원문의 어떤 형태를 번역한 것인가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그러나’의 경우를 보면, 원문의 접속사 ‘but’을 ‘그러나’로 번역한 용례가 가장 많았고(129건), 다음으로 원문에 대응하는 어구가 없는데도 문맥에서 유추하여 ‘그러나’를 문두에 세운 용례가 많았으며(105건), 접속사 ‘however’가 그 뒤를 이었다(54건). 기타 접속사 ‘yet’를 번역한 용례(10건)와 ‘and’를 번역한 용례(6건)가 있었고, 원문에 아예 없는 문장을 윤색으로 집어넣으면서 들어간 용례(5건)와 문장부호 줄표(dash)를 번역한 용례(3건)도 보였다.³⁸⁾ 다음에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역문과 원문 용례를 (34)-(36)에 소개한다.

(34.T) 이따금씩은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캐더린은 자기가 납치당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납치당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56-1-259)

(34.S) Sometimes she could think: she knew she was kidnapped, but she didn't know by whom.

(35.T)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는 최소한 원리상으로 치료사와 요술사의 역할은 구별

37) 필자는 현재 잠정적으로 그 원인을 명시화와 단순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전후 문맥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번역자의 심리적 명시화 의도가 문장의 논리적 연결관계를 드러내는 문장 접속부사의 과잉 사용을 낳고, 그 가운데서도 의미의 적용 영역이 넓은 상위어(=상위어, *hypernym*) ‘그러나/하지만’이 하위어(=하위어, *hyponym*) ‘그런데’보다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역으로 말하면 비번역문, 곧 모국어 텍스트의 필자는 직관적으로 문맥의 세부적인 사항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직접 표층 대조와 직접 심층 대조 및 간접 대조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원문의 의미 전달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번역문 텍스트의 필자는 문맥에서 보다 선명한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여 직접 표층 대조를 다른 형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8) 나머지는 ‘still’, ‘instead’, ‘on the other hand’ 등이 각각 1건씩 조사되었다.

된다. (249-4-112)

(35.S) (ø, zero) In other societies, the roles of healer and sorcerer are distinguished, at least in principle.

(36.T) 그러나 신들이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원들도 있다. (182-3-105)

(36.S) There are some temples, however, that are believed to be permanent dwelling places of the gods.

다음으로 ‘하지만’의 경우를 보면, ‘그러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문의 접속사 ‘but’을 번역한 용례가 가장 많았고(239건), 다음으로 문맥에서 유추하여 문두에 ‘하지만’을 세운 용례가 많았으며(77건), 접속사 ‘however’를 번역한 용례가 뒤를 이었다(16건). 그리고 그 뒤를 접속사 ‘though’를 번역한 용례(13건), 접속사 ‘and’를 번역한 용례(11건), 원문에 아예 없는 문장을 운색 과정에 집어 넣으면서 들어간 용례(6건) 및 접속사 ‘yet’를 번역한 용례(3건)도 보였다.³⁹⁾ 이 결과를 앞서 조사한 ‘그러나’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새롭게 접속사 ‘though’가 등장한 것과 접속사 ‘and’의 빈도가 뚜렷이 증가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두 형태의 등장은 ‘하지만’(직접 심층)이 ‘그러나’(직접 표층)와 일정 부분 의미 영역을 공유하면서도 비교적 약한 대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앞서의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역문과 원문 용례를 (37)-(41)에 소개한다.

(37.T) 하지만 의사는 생명이 낭비되고 있을 때도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되지요. (80-1-302)

(37.S) But I don't think a doctor can stand to see a life wasted.

(38.T) 하지만 저는 제가 끌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96-1-368)

(38.S) (ø, zero) I said okay, I'll lead her around.

(39.T) 하지만 그것은 샤머니즘이 아니며,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주변 부족 민들에게서 발견되는 영혼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41-4-38)

(39.S) However, it is not shamanism and does not involve soul flight, which in India is generally found only among marginal tribal

39) 나머지는 ‘still’(2건), ‘because’(1건), ‘or’(1건), dash(1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people.

(40.T) 하지만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진 않을 거예요. (238-2-226)

(40.S) I don't think he's really expecting me, though.

(41.T)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내일 콰티코의 연수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89-1-351)

(41.S) And you'll be back in school at Quantico tomorrow.

다음으로 ‘그런데’의 경우를 보면, ‘그러나’와 ‘하지만’의 경우와 조금 달리 문맥에서 유추하여 문두에 ‘그런데’를 세운 용례가 가장 많았고(54건), 원문의 접속사 ‘but’을 번역한 용례가 다음으로 많았으며(33건), 접속사 ‘and’를 번역한 용례가 그 뒤를 이었다(18건).⁴⁰⁾ 이 결과를 앞선 ‘그러나’와 ‘하지만’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문맥에 의한 도입과 접속사 ‘and’의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문맥에 의해 도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그런데’가 원문의 어떤 표지에 이끌려 번역되는 접속부사가 아니고, 상당히 유동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접속사 ‘but’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접속사 ‘and’의 빈도가 늘어난 것은 강한 대조의 의미기능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에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역문과 원문 용례를 (42)-(44)에 소개한다.⁴¹⁾

(42.T) 그런데 이 친구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25-1-287)

(42.S) (ø, zero) He heard a little noise and it was a butterfly in the open suitcase.

(43.T) 그런데 나중에 내가 없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다. (79-2-229)

(43.S) But later I hear the part of the story that I wasn't present for.

(44.T)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62-2-119)

(44.S) And now he's going to die.

40) 나머지는 ‘though’(3건), 말줄임표(…, 2건), ‘while’(2건) 및 colon과 dash, ‘however’, ‘by the way’, 기타(원문에 없는 어구 삽입) 각 1건씩으로 조사되었다.

41) ‘그렇지만’과 ‘근데’는 용례가 적어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각각 3건과 2건이 조사되었는데, 원문의 대응 어구는 접속사 ‘but’, ‘however’, ‘yet’(이상 ‘그렇지만’) 및 문맥(ø, zero) 2건(‘근데’)이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원문의 ‘그러나’와 ‘하지만’은 접속사 ‘but’을 번역한 용례가 가장 많았고(각각 129건, 40.9%; 239건, 64.5%) ‘그런데’는 문맥에서 유추해서 도입한 용례가 가장 많았다(54건, 46.1%). 그 다음으로 많은 용례는 ‘그러나’와 ‘하지만’의 경우에 문맥에서 유추해서 도입한 것이고(각각 105건, 33.3%; 77건, 20.8%), ‘그런데’의 경우에 접속사 ‘but’을 번역한 것이었다(33건, 28.2%). 접속사 ‘and’를 번역한 용례는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의 순서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조의 의미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4.2.4. 문장부호: 줄표(dash)

원문과 번역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활용하여 문장부호 줄표(dash)의 번역 용례를 조사하는 목적은 영어의 줄표(dash)를 한국어로 번역한 기술적 자료의 확보에 있다. 이는 양쪽 언어에서 동일한 형태를 가진 문장부호가 실제 번역 작업에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영한 번역에서 유용한 줄표의 번역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⁴²⁾

우리가 구축한 코퍼스에서 원문에 문장부호 줄표가 포함된 문장 용례는 모두 1,039건이었다. 영어 원문의 줄표는 대략 일곱 가지 유형으로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났다. 우선 가장 많은 것은 줄표를 전후로 문장이 분리되어 새로운 문장이 생성되는 용례였다(421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줄표를 없애고 어순을 재배치하거나(203건) 줄표를 없애고 어순을 그대로 둔 채 풀어쓰거나(188건) 한 용례였다. 기타 줄표가 있는 어구를 번역자가 누락한 용례(116건), 말줄임표로 변환한 용례(74건), 괄호로 처리한 용례(24건), 쉼표로 대체한 용례(13건) 등이 나타났다. 아래에 관련된 예문을 차례로 제시해 본다. 먼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던 새로운 문장 생성의 용례이다.⁴³⁾

42) 필자는 번역 전략의 제안에 앞서 충분한 기술적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관련 어구의 표현 형식을 용법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원문의 줄표가 형식적 존재이므로 상응하는 번역문에서도 표현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영어 줄표가 담당하는 의미기능(흐름의 변화, 단절, 보충설명, 강조, 동격, 예시, 열거 등)에 대해서는 김도훈(2010)을 참고할 수 있다.

- (45.S) Vishnu and Brahma were arguing, each declaring himself to be the greatest of the gods, when suddenly a great pillar of fire appeared from the waters—it was so tall that it seemed to be unending. (929-3-66)
- (45.T) 비슈누와 브라마가 각기 자신이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불기둥이 물속에서 뛰어나왔다. 불기둥은 너무 높이 서 있어서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 (46.S) She blushes—again, something she shouldn't do, but, in this case, I am glad to see it. (451-2-9)
- (46.T) 린지가 얼굴을 붉혔다. 다시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지금 내 눈에는 오히려 보기가 좋다.

위 (45)와 (46)은 원문의 줄표를 전후해서 문장이 둘로 나뉘는 용례의 보기이다. 이 경우의 줄표는 대체로 정보를 덧붙이는 부연 혹은 보충 설명의 용법으로 도입된 것이다. 다음은 원문의 상대 어순이 유지되거나 재배치된 경우의 용례이다.

- (47.S) Only the body dies, which is a temporary shell whose components return to their sources when burnt by cremation—the “eye to the sun” and the “breath to the wind”. (962-3-126)
- (47.T) 육신이 죽으면 화장할 때 그 육신을 이루고 있던 구성들은 각기 그 본래대로, 즉 눈은 태양 속으로, 숨은 바람 속으로 돌아간다.
- (48.S) One-quarter of all medical prescriptions are based on substances that come from plants, or from plant-derived synthetic analogues, and about 8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primarily those in developing countries—rely on plant-derived medicine for their health care. (1006-5-12)
- (48.T) 모든 의약 처방의 25% 정도는 식물에서 얻은 성분이거나 식물의 성분을 본떠서 만든 합성 유사화합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인구의 약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물에서 추출한 약에 의존하고 있다.

43) 여기 보이는 예문의 출처 표기는 원문의 쪽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위 예문 (47)에서는 줄표가 관장하는 어구가 앞에 나온 ‘본래(the sources)’의 실질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서로 어순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서술되고 있으며, 예문 (48)에서는 줄표가 관장하는 어구와 여기에 걸리는 ‘세계 인구(the world’s population)’가 서로 어순을 바꾸어서 수식-피수식 구성을 형성한 상태로 서술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문 (47)과 (48)의 줄표는 각각 예시(열거)와 수식(한정)의 용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⁴⁾ 그런데 실제 자료를 관찰해보면, 이 두 가지 줄표의 번역 기법이 번역자의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아래 예문 (49)를 살펴보자.

(49.S) Each of the five elements—wood, fire, earth, metal, water—possesses its own particular set of correspondences, which is used by Chinese physicians along with pulse measurements, dreams and the history of the patient in making a diagnosis. (1029-5-87)

(49.T) 나무 [木] · 불 [火] · 흙 [地] · 금속 [金] · 물 [水] 등 오행의 각 요소는 그것만이 상대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은 중국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진맥이나 꿈, 병력과 함께 이용한다.

(49.T') 오행의 각 요소, 즉 나무 [木] · 불 [火] · 흙 [地] · 금속 [金] · 물 [水]은 그것만이 상대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은 중국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진맥이나 꿈, 병력과 함께 이용한다.

위 예문 (49.T)에서는 줄표가 관장하는 어구가 앞에 나온 ‘오행의 각 요소’를 수식하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데, (49.T')에서는 줄표가 관장하는 어구가 ‘오행의 각 요소’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다음은 줄표와 관련된 어구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의 용례이다.

44) 위에서 언급한 문장 생성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어순의 유지 혹은 재배치와 관련된 경우에 원문의 줄표를 전후한 문맥의 성격에 따라 모종의 연결 표현이 도입될 수 있다. 위 예문 (47)의 ‘즉’이 그러한 예이고, ‘다시 말해서’, ‘등’ 과 같은 표현은 물론 ‘그러나’ 등의 접속부사, 혹은 ‘때문’을 동반한 의존명사 구문이나 용언의 연결 어미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문법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들은 대체로 동격 구문을 이루고 있다.

(50.S) You'd be buying quartz watch movements – wouldn't you? – and they're already under patent.

(50.T) 쿼츠 시계 사 보셨죠? 그런 건 특허가 나 있죠.

위 예문 (50)을 보면, 줄표에 담긴 부가의문문 어구가 번역문에 특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확인의문법으로 통합되어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예문 (51)에서는 줄표가 관련된 어구가 번역에서 통째로 빠져 있다.⁴⁵⁾

(51.S) It was hard to behave in a responsible manner – he wanted to fly about the room like Danny Kaye. He laughed and blew a moth away from his face with a gentle puff of air. (332-1-302)

(51.T) 칼을 점검하는 그의 얼굴로 좀나방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그는 장난스러운 손짓으로 좀나방을 쫓았다.

원문 텍스트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도 번역 전략 차원에서 번역자의 의도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줄표 관련 어구의 누락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번역자의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예문 (51)과 같은 정도의 누락이라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작자의 의도 역시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⁴⁶⁾ 다음 예문 (52)는 영어 원문의 줄표가 한국어 번역에서 말줄임표로 번역된 용례이다.

(52.S) “I wanted you and Artie to talk. He's dying to see –” (601-2-76)

(52.T) “당신과 아티가 얘기 나누길 바랐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죽도록 보고…….”

위 예문 (52)에서는 줄표가 번역문에 말줄임표로 변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의 용례는 대체로 문장의 끝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아래 (53)에서

45) 이 예문은 줄표와 무관한 번역상의 누락으로 볼 수도 있다(익명의 심사자 지적).

46)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원문의 줄표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은 용례가 116건이나 나타났다는 점은 본고의 주제를 떠나서 번역 윤리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음미해볼 만한 문제이다.

보듯이 간혹 문장의 중간에 오기도 한다.

- (53.S) “You said tomorrow—you’re in a hurry.” (17-1-5)
(53.T) “내일 떠나라고 하셨는데 …… 바쁘신 모양이군요.”

이 용법은 원문에서 줄표로 나타난 말을 채 마치지 못한 상태를, 번역문에서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말줄임표로 변환한 경우이다. 다음은 줄표가 관장하는 어구가 괄호로 묶여서 번역되는 경우의 용례이다.

- (54.S) It’s infuriating that he’s kept another secret from me—how many are there?—but okay. (636-2-95)
(54.T)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대체 비밀이 몇 가지나 되는 건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뭐 괜찮다.

작자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른 순서를 유지하려면 이 어구를 앞뒤 문장에 적절하게 통합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는지 번역자는 위 예문 (54)에서 보듯이 괄호로 묶는 방법을 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줄표가 관장하는 어구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은 줄표가 관장하는 어구가 쉼표로 번역되어 번역문에 독립 어구로 나타나는 경우의 용례이다.

- (54.S) Buddhist and Jain terms such as *gana* (troop) and *sangha* (community) were commonly used in the *Vedas* to describe nomadic warrior brotherhoods, whose membership—like the forest orders—was governed by age, fitness and high birth. (911-3-29)
(54.T) 불교와 자이나교의 ‘군대’를 뜻하는 가나(*gana*)와 ‘공동체’를 뜻하는 상가(*sangha*)와 같은 용어는 <베다>에서 흔히 쓰인 것으로, 숲속 공동체에서처럼, 나이와 체력, 출신 등에 의해서 통제되던 유목민 전사 구성원들이 소속감, 형제애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줄표를 전후해서 문장이 분할되고 새로운 문장이 생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21건, 40.5%), 다음으로 줄표

와 관련된 원문의 어순이 도치되면서 연결 표현과 함께 번역문에 나타나는 용례(203건, 19.5%)와 원문의 어순을 지키면서 연결 표현과 함께 번역문에 나타나는 용례(188건, 18.1%)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줄표 관련 어구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 말줄임표로 나타나는 경우, 괄호로 묶여 나타나는 경우 및 쉼표를 매개로 독립어구로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었다.

5. 번역 언어와 일상 언어의 거리

5.1.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

이상에서 언급한 코퍼스 조사 결과가 번역학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라는 정성적 수단에 의해서, 정량적 통계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번역문과 원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활용하여 실행한 네 층위에 걸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번역문만으로 구성된 코퍼스를 통계 처리한 정량적 분석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의미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⁴⁷⁾

5.1.1. 의존명사 ‘때문’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서 의존명사 ‘때문’이 무엇을 번역한 결과인지를 조사한 결과, 원문에는 그에 상응하는 언어적 근거가 없지만 전후 문맥에서 유추해서 번역에 반영한 용례가 가장 많았는데(249/559, 44.5%), 이는 번역문의 보편소 가운데 하나인 명시화의 특징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명시화란 원문에는 없지만 TT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일 목적으

47) ‘그 연원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부제에서 표방했던 두 가지 연구 목표 가운데 첫 번째인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한 정량적 연구의 보완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두 번째인 중간언어를 일상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형식화한 수정변환규칙의 제안은 원래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상태(익명의 심사자 지적)임을 자인한다. 이들 규칙의 체계화와 정밀화는 후고를 기약한다.

로 문맥적 지식이나 상황을 참고하여 번역문에 형태와 정보를 덧붙이는 (혹은 빼는) 번역 기법이다. 명시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의존명사 ‘때문’이 선택된 것은 이 단어가 전후 문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⁴⁸⁾ 그리고 이러한 명시화는 ST와 TT의 언어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TT 독자들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의도로 번역자가 채택한 번역 중재 방법이므로 선택적 명시화(안동환 역 2008: 77)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

명시화는 TT 독자들의 가독성 증대에는 확실히 효과적이지만, 자칫 일정한 정도를 넘게 되면 텍스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문학 작품과 같은 정서적 텍스트라면 명시화 전략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존명사 ‘때문’과 관련된 우리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 번역문에 의존명사 ‘때문’이 빈출하는 것은 TT 독자들의 가독성 증대를 위하여 번역자가 원문과 번역문을 중재할 때 선택적 명시화 기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이는 번역문의 의존명사 ‘때문’을 원문과 대조했을 때 문맥에서 유추한 (즉, 영형태에서 번역된) 용례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둘째, 의존명사 ‘때문’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볼 때 일정한 의미 영역을 공유하는 일련의 어휘(‘탓’, ‘덕분/덕택’)와 어느 정도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데, 번역문에서는 ‘탓’과 ‘덕분/덕택’이 쓰일 자리에 ‘때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앞의 4.2.1. 참고). 이것 역시 번역자가 상대적으로 의미 적용영역이 넓은 어휘를 선택한 선택적 명시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의미장⁴⁹⁾을 가진 어휘의 집합에서 의미의 적용영역이 넓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상위어(hyponym)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⁵⁰⁾, 따라서 번역자

48) 명시화의 기제로 응집성 표지나 연결 성분이 선택된다는 것과, 그 결과로 번역문에 접속사와 같은 연결 표현이 비번역문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외국의 코퍼스 분석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안동환 역(2008: 74-7) 참고.

49) 여기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정도의 기능의미를 가리킨다.

50) 이에 비해 ‘탓’과 ‘덕분/덕택’은 하위어(hyponym)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비해 [+부정적 상황], [+긍정적 상황]이라는 성분 자질을 각각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 이러한 상위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의미 차이를 희생하더라도 TT 독자들에게 보다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현상이다.⁵¹⁾ 하나의 어휘장에서 이와 같이 상위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심화되면 이 상위어의 텍스트 출현 빈도가 다른 (구성원)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어휘 사용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단순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⁵²⁾

셋째, 선택적 명시화는 TT 독자들의 가독성 증대에 효과적이지만,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거나 지나치게 논리적인 설명문으로 변질될 과잉번역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5.1.2. 장형사동 구문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서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장형사동이 영어 원문의 어디서 왔는지를 조사한 결과, 원문에 사역동사가 있는 구문을 장형사동 구문으로 옮긴 용례(65건, 14.4%)는 원문의 일반동사 구문을 장형사동 구문으로 옮긴 용례(222건, 49.3%)에 훨씬 못 미쳤다.⁵³⁾

우선 사역동사 구문을 장형사동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부터 검토해 본다. 앞서(4.2.2.) 언급한 대로 여기에 속하는 용례들 가운데서 일부는 단형사동 구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정 정도 ST와 TT의 언어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명시화로 볼 수 있다.⁵⁴⁾ 다음 예문 (55.T)는 (55.T)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55.T) 테이트는 머레이에게 어깨를 잡게 하고 자기는 다리를 잡아 펌브리
를 계단 앞으로 옮겼다. (72-1-392)

-
- 51) 김혜영(2009a: 45)에서는 ‘때문’을 의미중립적 어휘라고 불렀다. 술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52)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한국어 번역문에도 의존명사 ‘때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높은 비율로 출현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번역문들 사이에 편차가 줄어드는 수렴화(상호 합치)의 사례가 될 것이다.
- 53) 기타 상응하는 특정한 동사나 구문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문에 장형사동 구문이 나타나는 경우(163건, 36.3%)도 적지 않았다.
- 54) 여기서 ‘일정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형사동 구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불가피한 번역이기 때문이다.

(55.T) 테이트는 머레이에게 어깨를 잡히고 자기는 다리를 잡아 펌브리를 계단 앞으로 옮겼다.⁵⁵⁾

위 (55)와 같은 예문이 구조적 명시화의 사례가 되는 것은 (앞서 4.2.2.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의 사동 구문은 단형인 어휘적 사동이 접사 부착에 의한 기본적인 사동구문 형성 과정이고, 장형인 통사적 사동은 부차적인 사동 형성 과정(periphrastic causativization)이기 때문이다. 즉, 원문의 사동 구문을 한국어로 옮길 때 기본적인 어휘적 파생과정(‘이’, ‘히’, ‘리’, ‘기’ 등의 접사 부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번역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사적 문법 장치(‘-게 만들다’, ‘-게 하다’)에 의지해서 처리한 것은 일종의 구조적 명시화 번역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⁵⁶⁾

다음으로 일반동사 구문을 장형사동 구문으로 번역한 경우를 검토해 본다. 일반동사 구문을 장형사동 구문으로 번역한 용례는 위에 언급한 사역동사 구문의 경우보다 구조적 명시화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는 ST(영어)와 TT(한국어)에 의미가 일 대 일로 대응되는 동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자가 임의로 장형사동 구문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형용사에서 파생된 동사가 원문에 나타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 예문 (56)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56.T) 꽃은 얼굴 증기욕에 사용하거나 요구르트나 오이즙과 섞어서 건조하고 기름진 피부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한다.

55)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음 뜻풀이와 용례 참고. ‘잡다’의 사동사. (예) 아이에게 겨우 연필을 잡혔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흔히 쓰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도 유사한 용법의 용례이다. 그렇지만 이 사동사 ‘잡히다’가 현재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 관계로 ‘잡게 하다’가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익명의 심사자 지적). 다만 ‘어깨와 ’다리‘가 대구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테이트가 자기 어깨를 잡히는’ 피동형으로 오해될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

56) 간단히 말해서 ‘구조 대 구조’의 번역이다. 원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문의 구조를 번역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명시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생각한다면, 원문의 구조가 번역문에 간섭을 일으킨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간섭’이라는 명제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는 극복해야 할 번역투의 사례가 될 것이다.

(307-5-65)

(56.S) The flowers are used in facial steam baths or mixed with yogurt or cucumber juice to cleanse and soften dry or oily skin.

위 (56)에서 밑줄 그은 어구는 원문의 동사 ‘soften’을 번역한 것인데, 단일 어휘를 대응시키지 않고 형용사(soft)의 부사형에 ‘하다’를 결합한 통사적 구조 대응시킨바, 이는 어휘적 파생절차(soft→soften)를 문법 장치에 의지한 통사절차로 처리한 것이다. 만일 번역자가 어휘 차원에서 번역어를 찾았다면 ‘연화하다(軟化-)’ 정도가 선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⁵⁷⁾

마지막으로 번역자가 임의로 도입한 의역 과정에서 사용된 장형사동 구문에 대해 검토해 본다. 앞서 제시한 예문 (28)-(29)에서 보는 구문은 원문의 사동 구문을 옮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에 상응하는 원문의 일반동사를 옮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의 용례를 장형사동 구문의 용법 확장으로 보고자 한다.⁵⁸⁾ 이와 같은 장형사동 구문의 용법 확장은 필연적으로 번역문의 형태와 통사 형태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단순화의 경향을 낳게 된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장형사동 구문과 관련된 우리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 번역문에 장형사동 구문이 빈출하는 이유는 원문의 사역동사 구문을 기계적으로 대응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역동사와 일반동사 구문을 번역할 때 사역([+causative])이라는 의미기능을 TT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에서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진 통사 결합(‘-게 만들다’, ‘-게 하다’)으로 처리하는 번역 전략을 채택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명시화의 결과이다.

57) 번역문에 문법적 장치의 수효가 증가한다는 보고(안동환 역 2008:89)도 우리의 논의에 참고가 된다. 한편, 원전의 특유한 문장구조가 ‘평이한 통사구조로 교체되는 현상’(ibid, 78)을 규범화의 특징으로 지적한 것을 고려한다면, 명시화와 규범화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접사의 첨가에 의한 어휘적 단형사동이 문법 형식의 결합에 의한 통사적 장형사동보다 훨씬 고유하고 따라서 한국어다운 사역 구문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58) ‘하다’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동사(pro-verb)라는 점도 이러한 통사 형식의 사용을 촉발했을 것이다.

둘째, 한국어 번역문에 보이는 장형사동 구문의 일부는 한국어에 고유한 어휘적 단형사동 구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장형사동 구문이 단형사동 구문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김혜영(2009a: 108-110)의 언급을 뒷받침한다.

셋째, 한국어 번역문에서 장형사동 구문의 용법은 상당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번역문의 형태·통사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관련 용법의 단순화를 유발하게 된다.⁵⁹⁾

5.1.3. 문장 접속부사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서 문장 접속부사 ‘그러나’(‘하지만’, ‘그렇지만’ 포함)와 ‘그런데’(‘근데’ 포함)가 무엇을 번역한 결과인지를 조사한 결과, ‘그러나’와 ‘하지만’은 접속사 ‘but’을 번역한 것이 가장 많았고(각각 129건, 40.9% 및 239건, 64.5%), ‘그런데’는 문맥에서 유추해서 영형태를 번역한 것이 가장 많았다(54건, 46.1%). 다음으로 많았던 용례는 ‘그러나’와 ‘하지만’의 경우에 문맥에서 유추해서 영형태를 번역한 것(각각 105건, 33.3% 및 77건, 20.8%)이고, ‘그런데’의 경우에 접속사 ‘but’을 번역한 것(33건, 28.2%) 등이었다.

위의 결과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사실은 번역자가 원문에 상응하는 언어적 대응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문맥 지식에 의존해서 ‘그러나’와 ‘하지만’ 및 ‘그런데’로 번역한 용례가 상당히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문에 언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암시적 정보를 TT 독자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의 대표적인 연결 표현인 문장 접속부사를 번역문에 도입한 데서 비롯된 전형적인 명시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명시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일련의 문장 접속부사가 선택된 것은 앞서 의존명사 ‘때문’이 선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문장 접속부사 역시 전후 문맥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장치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위의 내용과 앞서(4.2.3.) 언급한 이들 문장 접속부사의 분포 상황을 종합하여 문장 접속부사와 관련된 우리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기로 한다.

59) 여기서도 의존명사 ‘때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이 번역문들 사이의 편차 감소로 나타나는 수렴화(상호 합치)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번역문에 문장 접속부사가 빈출하는 것은 원문의 문맥을 보다 분명하게 TT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번역자의 중재 의지가 반영된 선택적 명시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역접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문법형태로 알려진 ‘그러나’와 ‘하지만’은 어체에 따른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고, 전자는 표층적인 대조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해 후자는 심층적인 대조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 분포를 보이고 있다(4.2.3. 참고). 여기에 전환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그런데’까지 포함하면 대조의 강도는 ‘그러나’ > ‘하지만’ > ‘그런데’의 순서가 될 것이다. 이는 영어 원문의 접속사 ‘and’를 번역한 용례의 빈도가 ‘그런데’ > ‘하지만’ > ‘그러나’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뒷받침된다.

셋째, 한국어 번역문에 대조 접속 ‘그러나’의 쓰임이 많은 이유를 원문의 대조 접속사 ‘but’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환 관계의 쓰임을 강한 대조로 잘못 번역한 데서 찾은 김혜영(2009a: 63-8)의 논의는 전적으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일차적으로 명시화에서 비롯된 ‘그러나’의 용례가 전체의 1/3(105건, 33.3%)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체 자료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⁶⁰⁾

5.1.4. 문장부호: 줄표(dash)

영어 원문의 줄표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영어 원문의 줄표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줄표를 전후해서 문장이 분할되어 새로운 문장이 생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0.5%), 다음으로 줄표와 관련된 원문의 어순이 도치되면서 연결 표현과 함께 번역문에 나타나는 용례(19.5%)와 원문의 어순을 지키면서 연결 표현과 함께 번역문에 나타나는 용례(18.1%)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줄표 관련 어구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용례(11.2%), 말줄임표로 변환된 용례(7.1%), 괄호로 묶여 나타나는 용례(2.3%) 및 쉼표를 거느린 독립어구로 나타나는 용례(1.3%) 등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원문의 줄표가 동일한 형태의 한국어 문장부호

60)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앞의 각주 37)에 밝혀 놓았다.

출표로 나타나는 용례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영어의) ‘대시’와 (한국어의) ‘줄표’는 기능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 (중략)… 기능적으로 등가를 이루며 도착어 용법에도 적당하다”(김도훈 2010: 52)라는 언급과 배치된다. 이러한 양상은 적어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번역자나 편집자 집단에서 줄표를 아직까지 (쉽표나 마침표, 가운뎃점 등과 같은) 통상적인 문장부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영어 원문의 줄표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보편적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ST 특유의 텍스트 특징을 TT의 전형적인 텍스트 특징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규범화이다.⁶¹⁾ 다시 말해서 한국어 문어 텍스트의 규범에서는 영어 원문에 나타난 줄표와 관련된 어구를 번역할 때 이 영어 문장부호의 수용을 거부하고 기존 규범에서 허용된 일련의 다른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5.2. 번역 언어에서 일상 언어로 - 수정변환규칙의 필요성

앞서 논의한 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활용하여 조사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은 크게 명시화와 규범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형식적 존재인 문장부호와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면, 언어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은 한마디로 명시화이다. 이는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사이에 명시화라는 중재 전략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 결과로 한국어 번역문이 비번역문과 사뭇 다른 문법적 혹은 문체적 특징을 띠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번역문과 다른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중간언어적 특징’으로 부르고자 한다.⁶²⁾ 한국어 번역문

61) 안동환 역(2008: 78)에도 네덜란드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 자료를 활용하여 구두점 표기의 교체 현상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4.2.1.) ‘때문’의 용례 조사에서 문장부호(줄표, 쌍점)의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 일부(17건)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규범화의 사례에 넣을 수 있다.

62) 중간언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류현주(2009: 11-2)를 참고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니므로 깊게 다루지 않는다. 류현주(2009)에는 ‘간언어’, ‘상호언어’, ‘제3의 언어’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널리 보아서 ST와 TT의 교섭(간섭)을 지칭하는 비슷한 개념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중간언어란 류현주

의 언어적 특징이 자연언어, 곧 일상언어의 특징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⁶³⁾, 우리는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징을 일상언어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TT가 일상언어와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을 번역 표현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런 경우에 번역 이후의 수정 과정, 즉 중간언어를 일상언어에 접근하도록 고쳐 쓰는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에 앞서 논의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의 수정변환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5.2.1. 의존명사 ‘때문’

앞서(5.1.1.) 언급한 대로 한국어 번역문에 의존명사 ‘때문’이 빈출하는 것은 선택적 명사화 기법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번역문의 언어가 일상언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택적 명사화 기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문학 작품 등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전후 문장만으로도 직접적 대조의 의미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존명사 ‘때문’을 삭제해서 적절한 글의 긴장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컨대 아래 예문 (57.T)에서 밑줄 그은 의존명사 ‘때문’은 생략해도 무리가 없다.

(57.T) 검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체는 인접 카운티에 있는 클렉스톤 지역 의료센터로 보내진다. 여기에는 훈련된 병리학자들이 있어서 인접 지역에서 모인 시체를 재부검하기 때문이다. (32-1-142)

(57.S) 검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체는 인접 카운티에 있는 클렉스톤 지역 의료센터로 보내진다. 여기에는 훈련된 병리학자들이 있어서 인접 지역에서 모인 시체를 재부검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탓’과 ‘덕분/덕택’이 쓰일 자리에 ‘때문’으

(2009)에서 말하는 (‘번역자투’가 아닌) ‘번역투’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한편 본고의 주장은 번역문에 나타나는 명사화와 규범화의 특성이 일상언어와 번역언어의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익명의 심사자 지적). 명사화와 규범화는 양자 간에 존재하는 각종 차이의 일부일 것이다.

63) 이는 원전 텍스트의 유형이나 번역의 특수한 목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문맥에 따라 이와 같은 교체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부정적 상황이 개제되었으면 ‘탓’으로 교체하고 긍정적인 상황이 개제되었으면 ‘덕분/덕택’으로 교체해 본다.⁶⁴⁾

끝으로 의존명사 ‘때문’과 관련된 용례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기 때문’ 구성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그 빈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아래 예문 (58)의 밑줄 그은 어구는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58')처럼 ‘좋아해서’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이다.

(58) 내가 크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몹시 질색을 해서 그랬다. (140-2-71)

(58') 내가 크림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몹시 질색을 해서 그랬다.

5.2.2. 장형사동 구문

앞서(5.1.2.) 언급한 대로 한국어 번역문에 장형사동 구문이 빈출하는 이유는 원문의 사역([+causative])이라는 의미기능을 TT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에서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진 통사 결합(‘-게 만들다’, ‘-게 하다’)으로 처리하는 구조적 명시화의 번역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해당 번역문이 복문 구성을 요구하는 등 앞의 예문 (20)과 같이 장형사동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용언으로 표현하거나 접사의 첨가에 의한 단형사동 구문으로 교체해 본다. 아래 예문 (59.a)는 다른 동사를 활용하여 ‘덜어드리지’로, (59.b)에서는 단형사동 구문 ‘보이려고’로 교체할 수 있다.

(59.a) 시간을 절약하게 해드리지. (22-1-110)

(59.b) 라스페일은 곧잘 자기 자신을 아주 위험한 로맨티스트로 보이게 하려고 했거든. (23-1-111)

5.2.3. 문장 접속부사

앞서(5.1.3.) 언급한 대로 한국어 번역문에 문장 접속부사가 빈출하는 것은 이들 연결 표현을 사용하여 원문의 문맥을 보다 분명하게 TT 독자들에게 전달

64) 구체적인 용례는 4.2.1. 예문 (5)-(6)을 참고할 수 있다.

하려는 선택적 명시화의 번역 기법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앞서 의존명사 ‘때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번역문이 일상언어에 근접하려면 선택적 명시화 기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후 문장만으로도 직접적 대조의 의미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혹은 불필요한 문장 접속부사의 사용으로 글의 긴장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접속부사를 삭제해 본다. 예컨대 아래 예문 (60)에서 밑줄 그은 접속부사 ‘그러나’는 생략해도 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접속부사 ‘그런데도’의 존재로 오히려 부담스럽게 읽힌다. (60.T)으로 수정해 본다.

(60.T) 그러면 지문 감식가는 화면의 지문과 실제 관련자에게서 뜬 지문을 비교한다. 그러나 버팔로 빌의 지문은 없었다. 그런데도 크로포드는 목록을 이용한 지문 대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36-1-164)

(60.S) Then a human operator compares the file fingerprints with latent prints found at the scene. There were no prints yet on Buffalo Bill, but Crawford wanted to be ready.

(60.T) 그러면 지문 감식가는 화면의 지문과 실제 관련자에게서 뜬 지문을 비교한다. (ø) 버팔로 빌의 지문이 없는데도, 크로포드는 목록을 이용한 지문 대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문맥을 잘 살펴서 직접 표층 대조의 용법을 지시하는 ‘그러나’를 간접 대조의 용법을 지시하는 ‘그런데’로 교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⁶⁵⁾

6. 맺음말

코퍼스를 활용한 통계 분석 처리는 생성된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경향을 있는 그대로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 처리 방식의 분석에 의지해서 대규모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경향’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서의 진실일 따름이다. 번역문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문의 특징 추출도 마찬가지로 번역 과정에 대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원문과

65) 구체적인 용례는 4.2.3. 예문 (33)을 참고할 수 있다.

번역문의 짝으로 병렬코퍼스를 구축한 다음에,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이와 같은 통계 처리에 의한 코퍼스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된 병렬코퍼스를 활용하여 조사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은 크게 명시화와 규범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존명사 ‘때문’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선택적 명시화, 장형사동 구문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구조적 명시화, 문장 접속부사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선택적 명시화의 번역 보편소가 발견되었다. 한편 텍스트를 구성하는 형식적 존재인 문장부호 줄표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규범화의 번역 보편소가 발견되었다.

앞의 세 가지 경우에 초점을 맞추면,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사이에 명시화라는 번역 중재 기법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우리는 이러한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중간언어적 특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간언어적 특징을 갖는 한국어 번역문의 언어를 비번역문인 일상언어에 근접하도록 다듬기 위한 일련의 수정변환규칙을 제안해 보았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0) 「텍스트성과 번역 전환 —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93-118.
- _____ (2001) 「정보성과 번역전환」, 『번역학연구』 2(1): 77-97.
- _____ (2002a) 「영한 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 양상」, 『번역학연구』 3(1): 125-144.
- _____ (2002b) 「Intertextual Mediati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번역학연구』 3(2): 163-188.
- _____ (2004) 「Contrastive Analysis of Cohesive Devices in English Source, Korean Target and Comparable Korean Texts」, 『번역학연구』 5(2): 163-184.
- _____ (2006) 『번역 입문』, 서울: (주) 이지북스.
- 김순영 (2005) 「Evidence of Explicitation in Texts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 Korean: A Corpus-based Pilot Study], 『번역학연구』 6(1): 143-166.
- 김영신 (2009) 「영한 번역에서 접속장치 전환 연구 - 접속사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7(1): 97-113.
- 김윤경 편 (1996) 『응용언어학과 통계학』, 서울: 한국문화사.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_____ (2009) 「한국어 번역문의 구조적 명시화 - 특정 보어 구문의 열세적 분포와 관련하여」, 『번역학연구』 10(3): 77-97.
- 김혜영 (2008) 「형태 분석 코퍼스에 기반한 번역문의 높임 표현 연구」, 『번역학연구』 9(4): 41-76.
- _____ (2009a)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9b)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 보편소의 실현 양상 - 국어 비교코퍼스에 기반하여」, 『통번역교육연구』 7(2): 103-122.
- _____ 외 (2010a)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의 격식성 연구 - 구어체와 문어체 사용을 중심으로 -」, 『번역학연구』 11(3): 93-120.
- _____ (2010b) 「가능 부정 ‘-을 수 없다’의 확장과 번역의 관계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8(2): 107-132.
- 류현주 (2009) 「번역투와 번역자투」, 『번역학연구』 10(2): 7-22.
- 안동환 옮김 (2008), 『코퍼스기반 번역학』 서울: 동인. (Sara Lavios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Radopi)
- 오미영 옮김 (2004) 『대조언어학』, 서울: 제이앤씨. (石綿敏雄·高田誠 (1990), 對照言語學, おうふう社: 東京)
- 원영희 (2004) 「의미의 선명화를 위한 번역담화상 잉여성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113-132.
- 윤희주 (2004) 「번역의 검증 기제로서의 성분분석 연구」, 『번역학연구』 5(2): 93-112.
- 이근희 (2005) 「영한 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세종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 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 _____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 _____ (2002) 「한국어와 영어 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3(1): 59-82.
- _____ (2003) 「한영 간 장소이동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4(1): 51-71.
- _____ (2004) 「영어 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145-166.
- 이영훈 (2001) 「불어⇔한국어 병렬코퍼스 구축을 위한 제안」, 『한국불어불문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193-197.
- ___ 외 (2010)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 『번역학연구』 11(1): 161-190.
- 임흥빈 (2004)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전성기 (1996) 『불한 번역 대조 분석』, 서울: 어문학사.
- 정호정 (2003a) 「코퍼스 중심의 번역학 연구」, 『번역학연구』 4(2): 71-88.
- _____ (2003b) 「B 언어로의 번역과 코퍼스를 이용한 교육 방법」, 『통번역교육연구』 창간호: 53-70.
- _____ (2007)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조재범 (2008) 「코퍼스를 통한 After all의 용례 분석 및 번역 교육에의 적용」, 『통번역교육연구』 6(1): 5-17.
- 최정아 (2003) 「병렬 말뭉치를 통한 한국어-영어의 번역 단어 수 연구」, 『번역학연구』 4(2): 89-116.
- 최승권·김영길 (2010) 「번역 말뭉치로부터 추출한 어휘 번역 패턴의 의미 분류와 자동번역시스템에의 활용」, 『번역학연구』 11(3): 277-301.
- 최진실 (2010) 「접속 부가어의 영한 번역 연구」, 부산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 황세정 (2004) 「번역 텍스트의 언어 사용역(register) 연구」, 『번역학연구』 5(1): 183-203.
- Baker M.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Baker, G. Francis and E. Tognini-Bonelli (eds), 233-250.
- _____ (1998)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Cheong, H.-J. (2004) *Translated Text Expansion and Contraction Phenomena: A Corpus-Based Study of Quantitative Target Text Changes as Reflective of Translator Medi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ac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Young-Ok (2010) 'How is the English Dash to be Translated into Korean?: Problems of Translation between SOV Language and SVO Languag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1(4): 173-202.
- Nida, E. A. &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 Pym, Anth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UK.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코퍼스 명세>

1. 이윤기 역 (2006) 『양들의 침묵』, 서울: 창해.
Thomas Harris (1988) *The Silence of the Lambs*, New York: St. Martin's Press.
2. 권상미 역 (2010) 『내 남편의 수상한 여자들』, 서울: 창해.
Bridget Asher (2008) *My Husband's Sweethearts*, New York: Bantam Dell.
3. 이재숙 역 (2005) 『인도』, 서울: 창해.
Richard Waterstone (1995) *India*, New York: Duncan Baird Publishers.
4. 김성례 · 홍석준 역 (2005) 『샤먼』, 서울: 창해.
Piers Vitebsky (1995) *The Shaman*, New York: Duncan Baird Publishers.
5. 강영민 역 (2004) 『허브』, 서울: 창해.
Frank J. Lipp (1996) *Herbalism*, New York: Duncan Baird Publishers.

[Abstract]

The Interlanguage Traits of Korean Translated Texts
— Their Original Sources and Some Solutions
to Overcome those Aspects —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complementing some limitations of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it is a quantitative method—by using the parallel corpus composed of English-original texts and Korean translated texts—it is a qualitative method. The results discussed so far are as follows:

The traits of Korean translated texts acquired by comparing Korean translated texts with English original texts, could be summarized into two terms, explicitation and normalization. In a more concrete sense, the translation technique of selective explicitation were applied in the case of Korean bound noun-related sentences and Korean conjunctive adverbs-related sentences; and that of structural explicitation, in the case of Korean long-form causative constructions. In addition, the normalization, which is a kind of translation universals, were consistently revealed in Korean translated phrases related to English punctuation, dash.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we have named the traits of Korean translated texts as ‘those of interlanguage’, and proposed some sets of adjustment rules, which are applied after the first translation, towards the mutual approaching of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normal language.

▶ Key Words: translation universals, simplification, explicitation, normalization, convergence, parallel corpus, Korean translated texts, interlanguage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11년 0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03월 11일